

산자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국내 첫 공식인정'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 국내 최초로 공식 인정됐다.

산자부는 지난 11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업종별 대책반 추진 실적 점검과 산업계 CEO간담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실적 인증서를 공식 발급했다. 또 올해 10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충남도청

'자동차 운행 없는 날' 호응



충남도청이 매달 마지막 날을 자동차 운행 없는 날로 지정,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자동차 운행 없는 날'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30일 모두

김 장관은 GS파워, 한화석유화학, 한 국서부발전 등 18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인증된 CO₂감축량은 총 55만4328톤으로 향후 조성될 예정인 국내 탄소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으며, CO₂톤당 약 5000원을 받고 정부에 팔 수도 있다.

국제적인 시안으로 급부상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발전, 정유, 철강 등 10개 업종 협회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과 등록을 추진하고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잠재량 분석을 수행했다.

LG화학, SK에너지, 기아자동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등록하여 민

380여명의 도청직원들이 동참하면서 도청주차장은 직원차량들로 빼곡했던 평소와는 달리 텅 빈 모습이 연출됐다.

또 그동안 도청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민원인들도 이날 하루 쾌적한 주차환경 속에 일을 보고 귀가했다.

도는 이번 시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민원인 만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의 5부제와 병행 실시되는 이번 시책은 '도청 공무원부터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됐다"며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점차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전문기관의 검증까지 완료했다. SK, LG 등은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으로 사내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업종 협회들은 업종 간, 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감축 이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탄소 저배출형 설비 도입과 공정개선으로 감축사업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제품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제품을 개발해 기업경쟁력을 높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울러,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여건들을 반영해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고, 감축사업과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사업(CDM)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주 장관은 "상시 운영되는 업종별 대책반에서 업계의 특성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축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 활성화를 위해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CDM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열회수형 환기장치 KS인증 도입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KS인증이

도입된다.

이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신축분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시스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KS표시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와 외부 공기의 열교환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며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환기장치다.

정부의 에너지절약기기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잇따라 출시해왔다.

그러나 KS인증 대상품목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KS인증은 지난 1년 동안 기술표준원이 각계의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최신기술을 반영해 KS개정안과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입하게 됐다.

이번 KS 개정과 KS인증 심사기준의 제정으로 내년 3월 중에는 KS인증 제품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펌프 사용 시 설치지원금 상향 조정

고효율펌프 설치지원금이 늘어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윤세원 씨, 에너지절약 앞장 이달의 KRISS인상에



수상자로 경영지원부 시설공작실 윤세원 실장(54)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원내 에너지 낭비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정광화)은 '이달의 KRISS인상' 11월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라 고효율펌프를 설치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설치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효율펌프를 신설 교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치지원금이 기존 절감전력 1kW당 19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펌프 이외에도 고효율조명기기, 전동기, 인버터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치지원금 단가의 상향조정과 장려금의 신설로 고효율펌프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제도 관련 정보는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 홈페이지(www.kemco.or.kr/reba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조사·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표준연에서는 매월, 그리고 매년 연구기관을 빛낸 연구원을 선정하여 이달의 KRISS인상 및 올해의 KRISS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실장은 ▲인터넷전화 도입을 통한 전화요금 절감 ▲건물별 에너지 담당자 선정을 통한 일일 에너지 점검 실시 및 문제점 개선 ▲설비별 교체시기 및 방안 설정을 통한 각종 시설물 보수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했다.

에너지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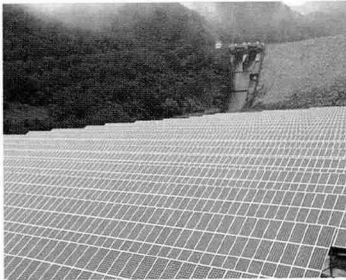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 설명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술표준원은 건실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에너지다소비업체 관계자, 에너지관련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공청회 및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시작해 12일 대전(호텔리베라 오후 2시), 13일 창원(장원호텔 오후 2시), 14일 여수(LG화학연수원 오후 2시)에서 끝낼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KS규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안) 및 추진일정 ▲덴마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해외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우수사례 ▲국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한국서부발전
국내 최대 3MW삼량진 태양광발전소
준공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지난 11월 6일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에 위치한 삼량진양수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용량인 2000kW급 태양광발전소의 준공식

참가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하나은행
태양광발전 자금 대출 '솔라론' 출시

하나은행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 '솔라론'을 지난 11월 27일 출시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솔라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자금을 연 7.2~7.4%의 확정금리로 90%까지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대금으로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을 개최했다. 삼량진양수발전소 하부담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는 총 3000kW 설비용량 중 1단계로 2000kW를 건설, 지난 9월 2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단계 1000kW 설비는 2008년 중 준공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판매수익은 25억원,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23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 외에도 가로림만 조력발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d Cycle),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28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발전소의 사업성 평가를 한 뒤 사업 초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REEEP)
세미나 개최

주한영국대사관, 지속가능경영원 주최로 지난 11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파트너십(REEEP)'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REEEP가 관련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잡고 있는 REEEP 국제사무국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자금지원과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개의 정부, 기업, 은행, NGO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REEEP에 가입, 두 개의 아태지역파트너십 의장을 맡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NGO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존 프렌치(John French)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과 NGO들이 REEEP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REEEP의 목적과 주요활동, 아시아지역의 REEEP 활동,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활동, REEEP 자금지원 구조 및 정책, 중국의 REEEP 지원사업사례 등이 소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제7회 에너지진단사 합격자 발표

에너지관리공단은 제7회 에너지진단사 자격시험 합격자 47명(열부문 33명, 전기부문 14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07명이 응시하여 47명의 에너지진단사가 새롭게 탄생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된 이번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오창건 씨(59세), 최연소 합격자는 김기찬 씨(26세)로 밝혀졌다.

에너지진단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진단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에너지전문가 그룹에 등록되어 다소비사업장의 기술지원을 위한 자발적협약(VA)사업의 기술지원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산자부가 지정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요건에 에너지진단사 자격이 반영됐고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진단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진단사 자격시험은 에너지절감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신기술 자격시험이다. 2008년도 시험 일정은 내년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정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대책 논의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대비한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협상전략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비해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서 마련한 협상전략과 쟁점사안을 놓

기술표준원

태양광제품 국제인증 도입

태양광제품의 국제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월 27일 태양광 제품의 개발과 수출 촉진을 위해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대상 품목은 태양광 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와 독립형 인버터,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셀, 태양광 집·채광기 등이다.

태양광 국제상호인증(IECEE PV)의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9월 가입신청을 하여 내년 2월에 국제심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고 협의를 벌였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창의적 유연성 발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발리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협약당사국인 189개국 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발리 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해 협상종료 시한 및 쟁점 사안별 협상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연구

기관 관계자는 “그간 국내 태양광 설비 인증제도를 국제 상호인증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IECEE PV 가입이 예상되는 내년 5월에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완전히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태양광 인증제도의 국제화를 계기로 2008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제품도 국제인증 취득이 사실상 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국가별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의 차이를 통일하여, 회원국 상호인증제도를 구축,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 나라의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 전문가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작성중인 제4차 기후변화 대책은 이번 발리회의 논의 결과와 함께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수렴을 한 뒤 12월 하순에 확정할 계획이다.